

# 뒤돌아 보는 삶이 아름답다

## 고려당 김윤관 대리

김윤관 씨를 취재하기 위해 성남시 상대원동 고려당 본사를 찾아가는 그날도 수은주는 섭씨 35℃를 오르내리고 있었다. 피서 차량으로 연일 몸살을 앓고 있는 고속도로나 야영장 곳곳에 함부로 버리고 간 쓰레기 따위만 아니라면, 그렇게 필사적으로 도시를 벗어나려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아무리 쓰레기가 산을 이루고, 물보다 사람이 많은 계곡이라 하더라도 분명 그곳에는 삭막한 도시생활에서 가져볼 수 없는 여유와 편안함이 있을 테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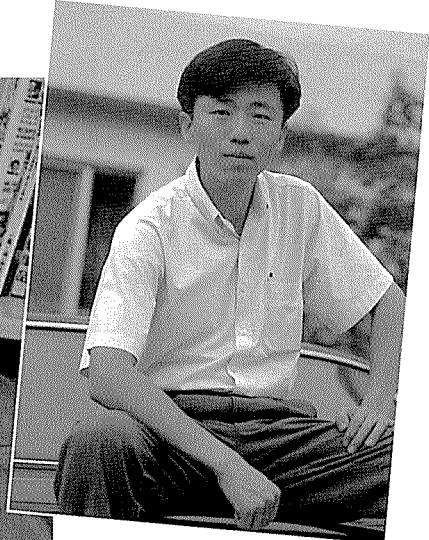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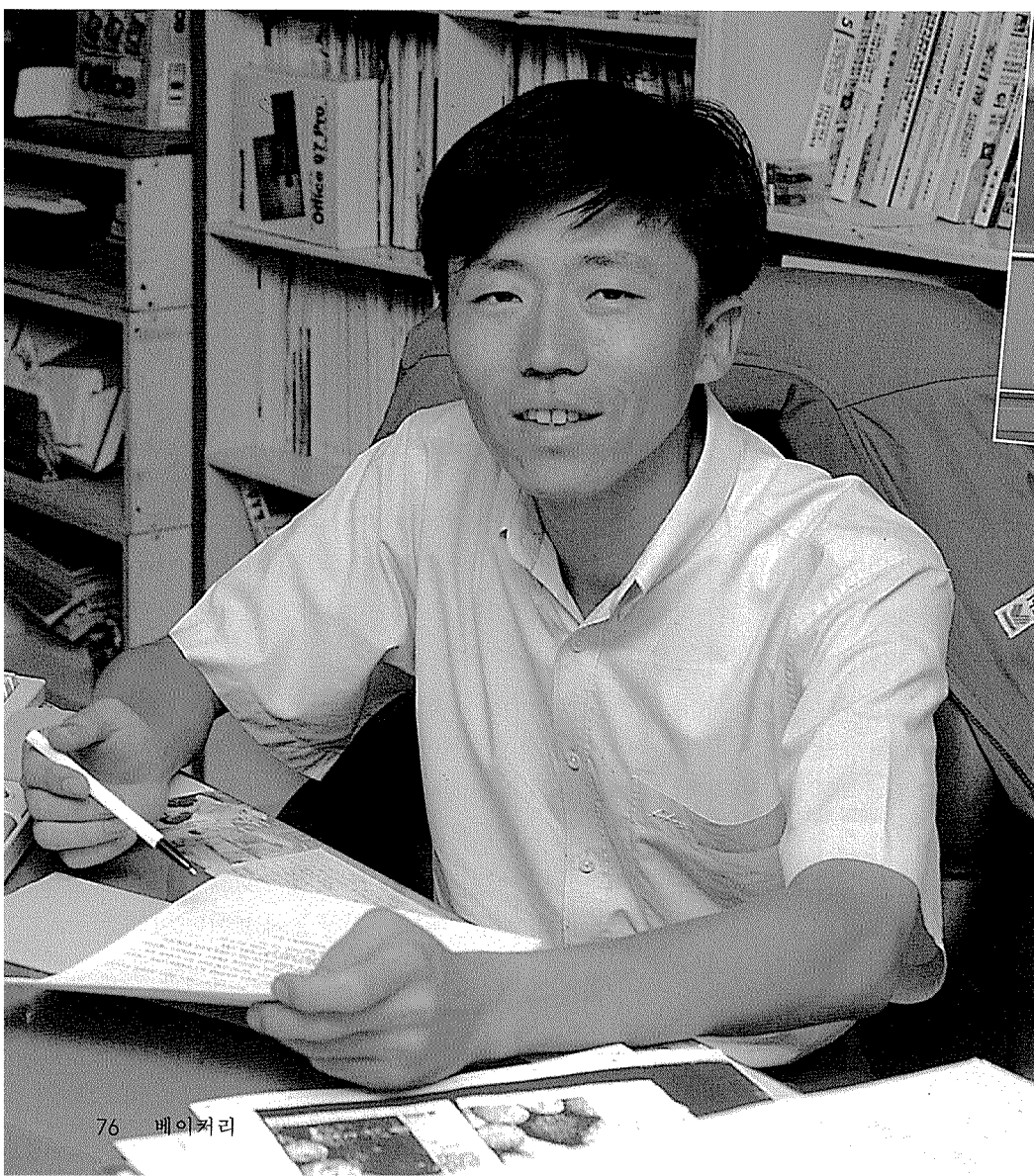
약속시간을 30분이나 넘겨서야 막 어느 피서지에서 돌아오는 사람처럼이나 말간 얼굴의 그를 만났다. 작렬하는 한

여름의 햇살을 까맣게 잊은 듯한 생기어린 그의 첫 인상이 꺾이나 여유로워 보였다.

### 광고에 매력 느껴 신문방송학 택해

어딘지 허술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여유로움이 어쩐지 그와 썩 잘 어울린다는 사실을 깨달은 건 그와 몇마디 인사를 나누고 난 뒤였다. 서른 하나라는 나이가 무색하게도 그는 각 부서에 배치된 신입사원처럼 마냥 생기가 넘쳐 보였다.

“자기 일에 100%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단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재미있단 생각은 들어요. 하고 싶었던 일이고 또 잘 해낼 수 있으리란 자신감도 있으니



▲ 올 4월 그는 퇴사 10개월만에 회사로 돌아왔다. 일에 대한 열정과 자기 삶의 중심을 가진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여유와 함께.

자기확신이 없는 열정이란  
허망한 것이다.

김윤관 씨에게도 선명한 삶의 이정표가  
필요한 시기가 있었다.

그것은 진정으로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의문이었다.

그가 얻은 확신이란 어떤 해답이었을까.  
그 아름다운 방향의 내력을 들어본다.

까요”

스스로 “재미 있다”고 말하는 그의 일이란 광고와 회사 홍보 등 마케팅실에서 기획하고 추진하는 전반적인 업무를 말하는 것이었다. 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한 사람답게 그 역시 ‘찰나에 하나의 선명한 이미지를 전달하는’ 광고 일일 때 흥미를 느끼고 있는 듯했다.

대학 시절, 그는 ‘정선 아리랑’에 대한 비디오물을 제작했던 색다른 경험이 있다. 준비기간 석달에 촬영에만 꼬박 한 달 이상이 걸린 15분짜리 다큐멘터리였다. 한(恨)의 소리로 알려진 정선아리랑을 그 나름대로 노동요의 하나로 재해석한 작품이었는데, 나중에 비디오를 본 친구들이나 교수들에게 적잖이 호평을 들었다. 그리고 보면 그의 재능은 가끔 엉뚱한 곳에서 빛을 발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학생신분에 가당찮게도 ‘단열성 경질 폴리우레탄 폼’이란 긴 이름의 건축용 단열재를 발명해서 학생과학전에 입상한 적도 있었다.

“건제상을 하시던 아버님이 부도를 내시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 매였죠.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선뜻 공업고등학교로 진학했어요. 어린 마음에도 내심 대학에 들어가는 대신 빨리 자립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겠죠”

입시의 중압감에서 자유로웠던 그가 이것저것 잡다한 취미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 마케팅, 매출에 탄력을 주는 측면지원

‘내내 놀기만 했던’ 그가 대학 진학을 결심한 것은 우연한 계기였다. 장학생으로 대학에 진학하게 된 누나의 심부름을 갔다가 마냥 싱그럽게만 보이는 캠퍼스의 자유로운 분위기에 마음이 끌렸던 것이다. 거기에는 학교를 졸업한 뒤 하필 대학교 재부서에서 첫 직장생활을 시작하게 된 자격지심도 있었다.

“한해 동안 직장에 다니면서 저녁에는 학원에 나가 입시

준비를 했죠. 신문방송학을 선택하게 된 것은 뭐랄까, 남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전달하는 과정이 참 흥미로워 보였어요. 광고물을 본 뒤에 머리속에 남는 것은 잔상에 불과한데 결과적으로 하나의 구체적인 이미지로 복원되거든요”

현재 그의 근무처인 마케팅실은 판촉행사나 광고 등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고, 언론사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회사의 홍보력을 증진시키는 부서. 그의 표현대로라면 “매출에 탄력을 만들어 내는 곳”이다. 당연히 그의 열의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매일 아침 PC통신의 메일과 신문 기사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그의 일과는 하루하루가 분주한 일정으로 채워진다. 기획안을 짜고, 광고대행사와의 업무를 조율하고, 각 언론사에 보낼 보도자료의 작성까지 그가 빠짐없이 챙겨야 할 주요 업무. 행사비만 4억원이 소요된 95년의 ‘회사창립 50주년’ 기념행사도 기획부터 진행까지 꼬박 1년여를 공들여 준비했던 보람있는 추억으로 남아 있다.

### 퇴사, 재입사를 통해 얻은 삶의 확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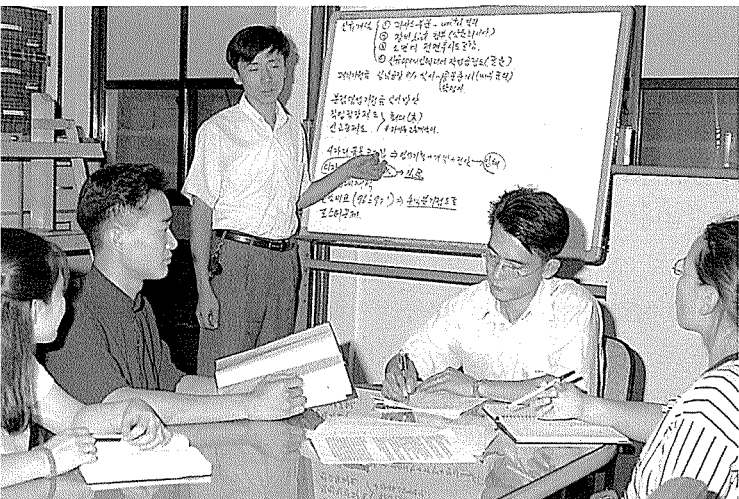
그의 이력서에는 두 번의 입사 날짜가 나란히 기록되어 있다. 93년 6월과 97년 4월. 이 두개의 입사일은 물론 오기(誤記)가 아니다. 지난해 초문득 그는 그런 회의감에 사로잡혔었다. “진정으로 내 인생을 걸 만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가?”

그토록 확실해 보였던 자신의 삶에 대해 그는 잠시 자신감을 잃었다. 눈 앞에 놓여진 수많은 길(道)은 난마처럼 얽혀 있고, 그 혼한 삶의 이정표조차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결국 그는 주위의 만류를 무릅쓰고 사직원을 내고 말았다. 그리고는 정말 하릴없는 사람처럼 7개월을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는데, 어느 순간 숲은 보이지 않고 당장 눈 앞의 나무 한 그루만 보이는 겁니다. 그게 싫었어요. 내가 살아갈 인생에 어떤 확신 같은 걸 갖고 싶었죠. 지금 생각하면 조금 무모했던 생각도 없진 않지만 그래도 그 시간들이 앞으로의 인생을 살찌워줄 훌륭한 계기가 될거라 확신합니다.”

올 4월 그는 퇴사 10개월만에 다시 회사로 돌아왔다. 돌아온 탕아(?)를 맞아준 건 동료들의 살가운 미소와 산적한 업무들이었다. 재입사 후 전과 다름없이 일에 파묻혀 있는 그의 모습은 얼핏 조금도 달라진 게 없는 듯 보인다. 하지만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꺾이나 달라졌다고 말한다. 그것은 일에 대한 열정과 함께 자기 삶의 중심을 가진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자신감과 넉넉한 여유 때문이다. 그의 눈빛이 한없이 평온해 보이는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수도 있을 것만 같다. 

〈글/이종원〉



▲ 출근과 함께 PC통신의 전자우편과 신문 기사를 확인하는 일로 시작되는 그의 일과는 무척 순기쁘게 이어진다. 동료들과의 업무회의도 빼놓을 수 없는 일이다.